



8 인터뷰 | 박봉석군 · 박새봄양

‘2010~2012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미소 국가대표’ 박봉석(포스트모던음악학 2005)군과 박새봄(포스트모던음악학 2008)양을 만나 미소 국가대표의 활동과 경험을 들어봤다.

5 기획 | 봉사활동으로 알찬 방학을

방학 중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좌담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와 의미있는 방학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제1468호

2010년 8월 6일 금요일
http://media.khu.ac.kr

대학주보



음대 동창회, 교수 임용 결과두고 대학 상대로 소송 음대 교수, 학부모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문해성 기자 munddo@khu.ac.kr

【서울】최근 음악대학(이하 음대)이 교수 임용과 관련한 가처분 문제와 교수의 학부모 폭행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해 6월 우리학교는 기악, 작곡, 성악 세 분야에서 교수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1차 심사가 진행되던 도중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당시 41대 음대 학생회에서 나오면서 심사가 중지됐다. 대학측은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새로 만든 채점 안을 바탕으로 신입교수를 선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음대 총동창회가 교수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

다. 1차 심사과정에서 1, 2위를 했던 지원자에게 2차 심사에 참여할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동창회의 주장이다. 결국 음대 총동창회는 지난 3월에 발령된 교수 3명의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음대 총동창회 홍윤식 회장은 “임용문제의 ‘피해자’들이 보복성 처사를 두려워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말없이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의 입장으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음대 측은 교무처에서 섭외한 외부교수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이 우리학교가 만든 객관화된 점수 지표로 채점했으며, 실기심사에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창회에서 주장하는 일차

심사 1, 2위는 일차심사 도중 중단됐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음대에서는 교수일동의 이름으로 지난 19일 가처분신청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동창회의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음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처분 문제는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유 교수 폭행건 진상조사

지난달 7일 경기도 과천의 한 식당에서 음대 유병엽(기악) 교수가 자신의 제자인 A양의 학부모에게 폭행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유 교수

가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경찰서 형사1팀 담당형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지만 유 교수는 폭행사건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조선일보 주말섹션에 보도된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음악대학 발전을 위한 학생모임’은 기사에 보도된 성희롱 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악대학 발전을 위한 학생모임 측은 “기사가 한쪽의 편향된 의견만을 토대로 작성됐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강훈 기사는 “기사는 A양 본인, 그 부모 등 당사자들의 말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

가 진행 중이다. 이훈 학장은 “진상 규명이 끝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전까지는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 조속한 진상 규명 요구

음대학생회 이대영(성악 2007) 회장은 “진상 조사가 끝난 뒤 잘못이 있음에도 교수라는 직함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의견은 사안별로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으나 학교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하루 빨리 해소해주길 바라고 있다.

B(기악 2007) 군은 “교수님들을 보는 것이 어색하다”며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오고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전학생,

(자율전공학과)

소통 없는

학과에 불만

정용재 기자 jyae91@naver.com

【서울】2010학년도 2학기 자율전공학과(이하 자전) 전용 강의가 2개로 줄어들었다. 지난 학기 자율전공학과 글로벌리더 전공과 글로벌비즈니스 전공의 전용강의가 각각 5개와 10개로 총 15개였던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전 김종호 학과장은 “타 학과 교수들이 자전 강의에 대한 열의가 적은만큼 상대적으로 시간 강사 위주의 전용 강의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며 “자전 전용 강의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질 좋은 타 학과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전 학생들은 ‘타 학과 교수들이 자율전공학과 강의를 꺼려 강의개설이 어렵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자율전공학과 학생들은 질 높은 자전 전용강의를 위해 자전 전임교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과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송이(자율전공학과 2010) 양은 “강의 수를 줄이기에 앞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서 자율전공학과 학생들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런 학과 측의 일방적인 태도에 자전 학생들은 글로벌리더전공 대책위원회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자전 대책위원회는 질의서를 통해 자율전공학과가 하나의 전공학과인 만큼 다른 학과들과 동일하게 전용강의와 이를 맡아줄 전임교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전 학생들은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2일 김 학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 학과장은 “자율전공학과의 설립취지가 학내 개설된 다양한 전공과목을 자율적으로 이수하는 것”이라며 “전임교수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입장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자전 학생회 대표 이병욱(자율전공학 2009)군은 “과 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학과장과 학생들 간의 정기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의 논의내용을 자전 사이월드 클럽과 자전 신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유학생 전동차에 투신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지난 2일 일반대학원 우오즈미 료헤이(Uozumi Ryohei, 석사5기) 군이 달려오는 전동차에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당일 7시 30분경 회기역과 외대앞역 사이의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했다. 료헤이 군이 전철이 달려오는 시점에 차단기를 넘어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학교는 사건경위와 투신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으며 장례와 향후조치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A(일반대학원 석사2기) 양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학생이었다”며 “별문제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우오즈미 료헤이 군은 지난해 대학원 동문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등 우수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HOTO NEWS

어르신들, 삼복더위 삼계탕으로 이겨 내세요

【서울】중복을 하루 앞두고 서울의 최고 기온이 32℃를 기록한 지난달 28일 회기동 룿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다. 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미래문명원이 후원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뤄졌다.

이날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윤병섭(중국어학 2006) 군은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문호 기자 jyo@khu.ac.kr

공정위로부터 ‘라이언’ 시정명령 받아

〈임시안내책자〉

정용재 기자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임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9개 대학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대학은 우리학교를 포함한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총 17개 대학이며,

경고를 받은 대학은 동국대와 경북도립대로 2개 대학이다.

공정위는 우리학교에 임시안내 책자인 ‘라이언(Lion)’ 23호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라이언 23호에는 회계세무학과와 공인회계사(CPA) 최종합격 인원을 2008년에는 40명, 2009년에는 34명, 2010년에는 38명이라고 명시하

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회계세무학과만의 공인회계사(CPA) 최종 합격 인원이 아닌 우리학교 전체 최종 합격 인원이었다.

입학관리처 측은 “공인회계사(CPA) 합격인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계세무학과 합격인원과 우리학교 전체 합격인원에 대한 오해로 표기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사전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은 기존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추후에 동일한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라는 의미”라며 “이를 불이행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앞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뷰



차관호 기자(jypirhn@khu.ac.kr)

음악으로 전하는 한국의 매력, ‘미소국가대표’를 만나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지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뚝뚝하고 화난 것 같은 얼굴로 바빠 걸어가는 시민들의 표정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우리의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학생 ‘미소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소국가대표 2기로 길거리에서 퓨전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박봉석(포스톤모던음악학 2005)군과 박새봄(포스톤모던음악학 2008)양을 만나 미소국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자녀 기자 (BELEN@khu.ac.kr)
추수경 기자 (skfall@khu.ac.kr)

사람들로 북적이는 강남역 커피 전문점. 한국을 대표해 국내로 관광 온 외국인에게 친절과 미소를 환대한다는 미소국가대표 박새봄 양과 박봉석 군을 만나봤다. 그들은 “인터뷰가 끝나면 내일 있을 공연을 위해 바로 연습하러 가야한다”며 기타와 해금, 각자의 악기가방을 맨 채 인터뷰 장소에 도착했다.

박 양과 박 군은 미소국가대표에서 ‘With Us’라는 공연팀을 이뤄 기타, 해금, 카혼 등 동·서양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통악기 공연을 선보이고 동시에 음악에 담긴 한국의 문화를 전하고 있다. ‘With Us’ 팀의 목표는 ‘한국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타이틀 아래 거리 공연을 확산시키고 우리 고유의 음악을 퓨전화해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지금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연주하고 있지만 박 군과 박 양의 팀 결성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박 군이 미소국가대표 공연팀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제안했을 때 박 양은 유럽 일주 여행을 앞두고 있던 터라 거절했다. 하지만 이들의 인연이 깊었던 것인지 아이슬란드 화산 사건으로 박 양의 여행이 무산됐고 결국 공연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한다.

박 양은 “유럽 일주 여행에 가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아쉽다”며 “하지만 평소에 전통 악기인 해금에 대해 알리고 싶었고, 이런 기회가 주어

져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금은 아직 대중화가 덜 된 악기인 만큼, 퓨전 음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는 질문에 박 양은 “해금은 흔하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타와 선율이 잘 어울린다”며 “기타의 소리가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흡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첫 길거리 공연, 설렘 잊지 못해

‘With Us’ 팀은 동양과 서양악기를 이용한 퓨전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편곡해 연주하는 등의 시도도 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릴 것 없이 관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이들은 첫 공연부터 관객들의 호응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길거리 공연이 처음이었던 박 군과 박 양은 사람들이 관심을 줄지 여부에 더욱 불안했다.

박 군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인사동이나 종로3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해봤어요. 눈길을 줄 것 같지 않던 행인들이 점점 모여들고 연주 실력이 좋다는 관객들의 응원에 절로 신이 났죠”라며 첫 공연장의 떨림과 흥겨웠던 분위기를 떠올렸다.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을 얻은 ‘With Us’ 팀은 관객에게 다채로운 연주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다양한 공연을 시도하게 됐다. 이들이 미소국가대표 소속의 다양한 공연팀들과 연합공연을 기획한 것이다. ‘With

Us’ 팀이 연주로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무용단이나 홍보 캠페인팀은 퀴즈 이벤트, 캠페인 활동 벌였다. 또한 월드컵 시즌에는 거리 응원의 하나로 미소국가대표 공연팀 소속 3개팀과 연합 공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음악을 통해 외국인과의 일체감 느껴

박 군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팀들과 어울려 공연을 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미소국가대표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것은 음악을 통해 외국인들과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공연을 통해 거리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이 관객으로서 호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와 다른 이방인’이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음악을 즐기고 향유하는 모습에서 일체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박 양은 “공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보며 음악이 갖는 공감과 소통의 힘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들은 서울에 자리 잡은 관광명소에서 매주 한 번 씩 공연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박 양과 박 군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에게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로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다양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With Us’의 음악이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기대해본다.

현장스케치

거리에서 미소를 연주하다

기자가 홍익 어린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벤치에는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미소국가대표 2기 ‘With Us’ 팀이 공연하기도 전에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봉석(포스톤모던음악학 2005)군과 박새봄(포스톤모던음악학 2008)양의 공연이 막 시작됐을 때는 내국인이 대부분이었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자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차 모여들었다. ‘음악은 인류의 공통어’라는 롱펠로우(H.W. Longfellow)의 말이 있듯이 이들의 멜로디는 지나가던 외국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스라엘에서 온 요가난(Yowchana)씨는 “올해가 ‘한국 관광의 해’ 인지 이들의 공연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이러한 캠페인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한국을 홍보하는 공연이 더욱 늘어나 볼거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앤드류(Andrew)씨는 “해금이란 악기를 처음 보는데 매우 신선하고 기타와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다. 한국에 이렇게 좋은 선율을 가진 악기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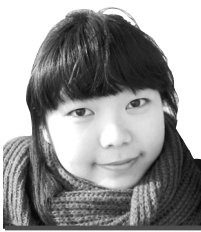
이들이 말을 마치는 순간 아리랑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우리의 전통 민속가락이 더욱 흥미로운지 공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요즘 연예인의 패션이 갈수록 과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시대가 지날수록, 새로운 스타일이 나올수록 연예인은 더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과격적인 스타일과 패션으로 등장한다. 연예인들이 경쟁하고 대중들에게 보다 사랑받기 위한 노력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을 거듭하는 연예인 덕분에 대중의 눈은 즐겁다.

그러나 연예인이 남과 차별화하기 위한 과감하고, 독특한 과격패션이 스타일의 창조를 넘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로 퇴행하고 있다. 레이디 가가(Lady Gaga)의 경우 과한 패션 아이템들을 주저 없이 매칭하기로 유명하다. 일반 패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의상들을 선보여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그녀의 과격적인 의상들에 대해 선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연예인의 선정성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참 / 여 / 마 / 당

박소은 (의류디자인학 2009)

연예인의 선정성이 주는
눈의 피로!?

다. 아무리 눈에 띄어야 화제가 된 다지만, 도를 넘긴 가수의 무대의상은 눈을 즐겁게 하기보단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0대에서 20대 전후의 아이돌 걸 그룹가수들이 흰히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패션의 기본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걸 그룹가수들 뿐 만 아니라 최근 컴백하는 가수나 연예인의 퍼포먼스도 민망하기만 하다. 핫팬츠는 이제 예사로 보일 정도다.

요즘처럼 연예인의 인기경쟁이

치열할 때 대중의 주목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무명의 연예인은 자극적인 비키니 사진으로 대중의 관심을 사려한다. 자신들의 재능과 노력보다 선정적인 퍼포먼스와 화제로 승부하려는 연예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일단 선정성으로 화제가 되고나면 그 뒤에 논란을 잠재우면 그만이다라는 태도일까.

이런 선정성 경쟁은 우리나라 연예계에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다. 재능이 아닌 말초적인 감성의 자

극으로 경쟁하는 것은 재능이나 다양한 문화의 생산으로 진행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정성 불감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주의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방송사에서는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의 컨셉과 연령층에 맞게, 연예인의 행위와 의상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두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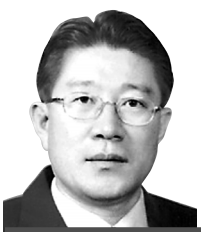
연예인 역시 화제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 만큼, 청소년과 대중들에게 본보기가 되려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컨셉을 의논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과한 행동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예인의 변신과 도전이 무모하고, 비난과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들이 아닌 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일 때 대중들은 더욱 환호한다. 또 연예인은 그들의 노력과 재능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박수를 받을 때 담당할 수 있다. 진정한 인기와 연예인의 역할은 이런 관계 속에 있다.

올 여름 방학 중에는 세계를 향해 여행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그 동안 금융위기 등으로 한 두 해 주춤했던 해외관광이 마치 붓물 터지듯 만원을 이루고 있다. 인천공항도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이다. 이제 여행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인 듯하다.

관광학을 전공하고 강단에 서서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해외여행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알 수 있다. 해외에 대한 막연한 동경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지역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여행경험이나 해외 체류경험을 한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곤 한다. 새로운 이국적인 맛을 느끼는 것은 물론 여행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삶을 반추



강 / 단 / 에 / 서 / 서

오길창 교수 <관광학>

문화관광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자

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행은 자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삶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적인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다가, 현지 여행을 통해 실제 문화를 접해 봄으로써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뛰어넘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실태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해외여행 경험 이 부족하고 여행문화에 대해 무지한 탓도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낮 뜨거울 때가 많다. 우선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심중팔구 한국인이 나 중국인이다.

선진국에서는 조용하다가도 우리보다 조금 못사는 것처럼 보이

는 나라에서는 종업원을 업신여기는 행동 역시 자주 목격하곤 한다.

항공기 내에서의 행태는 진짜가관인 경우가 많다. 나도 지난 달 말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 통로좌석에 혼자 잠시 눈을 붙였는데 얼마 후 나이 지긋한 분이 옆 두개의 빈자리에 양말을 벗은 채 등받이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고 코를 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경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관광분야의 최고의 지성인들이다. 호텔관광과 조리외식관광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경희인들이 선도해 나갈 것이다.

과거 관광이 돈벌이 차원에서 우선시 되던 것이 앞으로 세계관광은 문화관광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경희인들이 선도적으로 문화관광의 표준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 설

교수 사회 각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학교 음대에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 학내 안팎이 시끄럽다. 음대 총동창회가 교수 임용 절차 및 심사에 문제를 제기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대 교수가 학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2개의 사안들은 음대에서 발생했다는 점 외에도 교수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교수는 학생, 직원과 더불어 학교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다. 교수는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진행하는 역할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게 학업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등대의 역할과 학교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비판과 조언을 할 수 있는 방향타의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있는 교수를 두고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교수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뢰의 상실은 교수와 구성원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변하게 한다. 그로 인해 교수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교수 사회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음대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전체를 문제시 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교수 사회를 바라보는 구성원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신감은 누가 키웠는가? 결국 일이 터질 때마다 정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교수 자신들의 문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덮어놓고 보려는 식의 문제 해결 과정과, 진상조사 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태도는 구성원의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든다. 특히 학생들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단지 타 언론 매체만을 통해 문제를 접하고 교수에 대한 막연한 판단만을 굳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사건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 후 모든 구성원에게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는 감춘다고 사라지는 차원의 것들이 아니다. 학교와 교수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학생과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문제를 한 교수의 일로만 매도하거나 일부의 문제로 인지해선 안 될 것이다. 교수 사회 전체가 나서서 스스로의 명예와 책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희지식인

무료로 외국학술지
이용하세요

국주연 기자 kook@khu.ac.kr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참고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무료 문헌복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중도)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무료 문헌복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강원대(생명공학), 경북대(전기/전자/정보통신), 고려대(인문학), 부산대(기술과학), 서울대(자연과학), 연세대(임상의학), 전북대(농축산학)등 7개 대학 7개 주제분야의 3,700여종의 외국학술지다.

자료 신청방법은 RISS홈페이지(www.riss.kr)에서 해외학술지논문으로 검색한 뒤 상세정보의 ‘소장기관’ 리스트에 ‘[무료]〇〇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확인 후 복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 후 Step 3의 제공도서관을 ‘[무료]〇〇대학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한 자료는 신청서 작성 시 [후불] 선택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중도 정기간행물실 원문복사서비스 데스크에서, 국제캠퍼스는 중도 외국학술잡지실에서 자료를 수령하면 된다. [선불] 선택의 경우는 신청한 주소지로 자료가 배송된다. [후불], [선불] 선택에 상관없이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 된다.

#.괜찮아 나니까... 대박 나든 쪽박 차든 쏠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이번 DJ D.O.C의 앨범 타이틀곡 ‘나 이런 사람이야’의 가사 일부다. 갑작스레 이 가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랜만에 돌아온 가수라서 혹은 앨범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은 아니다. 지난 1일 DJ D.O.C의 멤버 이하늘 씨가 트위터를 통해 “SBS ‘인기가요’ 측이 자사 토크쇼인 ‘강심장’에 출연하지 않으면 ‘인기가요’에 출연을 안 시켜준다면 스케줄을 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미화 씨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KBS에 일부 연예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의 글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해당 방송사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 두 연예인의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누리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에



세 / 시 / 봉

권오은 <기자>

방송국의 착각?
‘나 이런 방송이야’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을 방송사는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방송사는 두 연예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방송사의 주장에도 여전히 여론은 방송사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공정성을 외치면서도 이념과 정부에 대한 지지여부, 방

송사의 사의 따위에 ‘공정’ 함을 잃어왔던 방송사가 만들어낸 불신의 벽이 그만큼 견고해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의 법적대응이나 출연제재와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방송사 스스로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다. 방송사가 국민을 위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힘쓰며 기쁨을 주는지

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거울삼아, 스스로의 잘못을 되짚어봐야 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강자의 태도로 부인과 부정으로만 일관하는 것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불신을 떨쳐 낼 수 없다. 연예인들에게, 나아가 국민들에게 ‘나 이런 방송사야’라고 말하기 전에 ‘나 이런 방송사가 되겠다’라고 보여주는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그 시작으로 각각의 방송사가 지니고 있는 방송윤리강령에 따라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가 회복해야할 공정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입으로만 떠드는 또 하나의 ‘쇼 프로그램’ 제작으로 그치는 것은 사양이다.

수습기획

태동하는 학생 인쇄매체:
다시 꺼내 쓰는 아날로그의 감성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지금의 디지털시대에, 사람들 사이에서 아날로그적 감성과 정제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발빠르게 반응하는 건 학생들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로 인쇄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신문은 새롭게 등장한 우리학교 학생 인쇄매체를 소개하고 그 의미와 한계점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청춘의 열정으로,
학생 인쇄매체 소개



■ 노네임 “디자인 학부 학생 발행 패션잡지”

노네임은 우리학교 디자인 학부 학생 7명이 장간한 패션잡지다. 처음은 친구들끼리 모여 패션과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준이었으나 그들만의 색채로 패션과 디자인에 대해 다른 잡지를 발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결국 6월 17일, 그들의 힘으로 만든 잡지 노네임이 탄생했다.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예림(디지털콘텐츠학 2008) 양은 인터넷 화면과 달리 손에 잡지를 들고 볼으로써 느끼는 ‘나만의 것’이라는 소유감이 좋았기 때문에 웹이 아닌 인쇄매체를 통해 세상에 선보이게 됐다고 한다.

■ 타이거 JK “정경대 학생회지”

힘합가수가 아니다. 타이거 JK는 정경대 학생회가 발행하는 학생회 소식지이다. 타이거 JK는 학생회 소식을 홍보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3월 처음 발행됐다. 정경대 학생회는 직접 강의실에 찾아가 학생회지를 배부한다. 기존의 딱딱한 형식의 학생회지가 아닌 곳곳에 학생들이 보고 웃을 수 있는 요소들로 학생들이 보다 친숙하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Oh!感 자전 “자율전공학부 신문”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산하 언론 사업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취재와 회의를 거쳐 한 달에 한번 Oh!感 자전을 발행한다. Oh!感 자전은 현 1대 자율전공학부 학생회가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지난 4월 달 발간됐다. Oh!感 자전은 주로 자율전공학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활동들에 초점을 맞춰 지면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은 한달에 한번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 바보 과대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월간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과·학부학생회 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바보 과대표’라는 월간지를 발행한다. 바보 과대표는 2002년 폐간 됐다가 8년만에 올해 2월 복간됐다. 과·학부학생회 발전특별위원회 박이성 도(경제학 2003)위원장은 “과·학부 학생회 임원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 하겠다”고 말했다. 바보 과대표는 과·학부 학생회 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원들끼리 취재와 회의를 거쳐 만들며 농활 같은 월별 사업이나, 정책 제안, 사회이슈와 같은 내용을 다룬 기획 글을 실는다. 만들어진 책자는 각 단과대 학부 및 과 학생회실에 배포된다.

디지털 매체에는 없다! 인쇄 매체에는 있다

박형우 기자 phw1218@mediakhu.ac.kr

기존의 학생 인쇄매체라 하면 신문방송국 산하의 대학주보와 영자신문지인 ‘The university life’, 교지인 ‘고황’, 나아가 모두에게 개방된 대자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 인쇄매체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과 접목되는 21세기에 들어서 그 기능이 웹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 인쇄매체들은 디지털 세대에 부합하는 매체의 형태를 찾아가기 위해 고심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반대로 학생들이 인쇄매체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옮겨진 시선은 패간됐던 학생회 신문이 복간되고 패션잡지를 만드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과물이 대중지보다 조금은 투박할지라도, 약간은 아마추어적일지라도 학생들은 종이에 글을 담기 시작했다.

왜 다시 인쇄매체로 돌아왔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현상은 인쇄매체의 주도권을 뺏었던 디지털 매체가 만들었다. 디지털 매체를 이용할수록 부족하게 느껴지는 ‘깊이’, ‘소유감’ 그리고 ‘감성

코드’를 인쇄매체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 빠른 세상 속 느낌에 대한 그리움

디지털 매체의 초단위의 속보성은 인쇄매체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속보성은 처음 디지털 매체가 등장했을때 매력으로 어필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속도 경쟁이 이뤄지면서 기사의 질보다는 기사를 누가 더 빨리 쓰는지 가 중요해졌다. 이는 기사의 깊이를 얇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이러한 상황은 제목만 거창하고 알맹이는 없는 낱시기사에 낡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신뢰할 수 없는 매체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긴 불신은 보다 심도 깊고 정확한 기사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 일으켰다. 오늘날 르몽드 디플로마크(Lemonde Diplomatique)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 같은 전문지의 독자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 ‘나는 나만의 것’이 좋다!

디지털 매체의 또 다른 강점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정보유통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가는 흐름 속에 더 이상 평범하거나 대중적인 것이 아닌 ‘자신만의 것’이라는 소유욕도 늘기 시작했다.

소유했다는 느낌은 디지털 매체보다 인쇄 매체가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디지털 매체의 정보는 끊임없이 바뀌고 다듬어져 완성 혹은 결과가 없는데 비해 인쇄 매체는 한 권, 한 부의 소유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 종이매체가 가지는 ‘감성코드’

인쇄매체로의 회귀는 새로운 것이 등장할수록 강해지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기인한다. 또한 우리에게 어린시절부터 익숙해진것들이다.

앨빈토플러는 “서투른 사무실이 개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쇄매체는 이미 학내에서부터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종이가 지니는 깊이, 소유 감성의 코드를 독자들이 공유하는 한 존재할 수 있다.

“관심과 유대감이 매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토양”

새로운 학생 인쇄매체의 등장은 학생들의 소리를 담을 그릇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한 때의 유행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학생 인쇄매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내의 소통창구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을 정경대학 한군태 학장을 만나 들어봤다.

임송이 기자 song3819@mediakhu.ac.kr

Q. 최근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인쇄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웹 매체가 각광받다가 다시 인쇄매체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우선 집단이 생각을 공유하는 장으로 웹 매체보다 인쇄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웹 매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반면에 학생들이 발행하는 새로운 인쇄매체는 목표 독자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같은 생각이나 취향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쇄매체에 의존하는 것이다.

Q. 이런 새로운 매체가 지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그들의 색다른 시도와 생각들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 기존의 제도화된 매체는 짜인 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이에 비해 새로운 학생 매체는 비록 서툴고 투박한 면이 있지만 그들 나름의 아이디어와 소재에 대한 접근은 기존기사와 차별성을 지닐 것이다.

한편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매체를 발행하는 학생들은 기성세대들이 만들고 있는 매체에서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독창적인 미디어를 창조해 내는 것은 욕구 충족만 아니라 학생 독자층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접점에 보다

쉽게 다다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매체들이 많이 등장할수록 민주주의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인 다양성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비록 동아리 수준이더라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생겨날수록 학내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Q. 새로운 학생 인쇄매체에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학생들이 제작하는 인쇄매체는 기존의 매체와 달리 특정한 집단 내에서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쇄매체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규범이나 전문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하지만 이런 발행이 취미활동 정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교수 초빙, 기존 매체와 연계하는 등의 활동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Q. 새로운 학생 인쇄매체를 통한 소통은 일방향적 소통에 가깝다. 양방향적 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기존 매체에서 독자투고란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의견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학생회지의 경우 학생회의 소식을 알리는 데만 급급하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부분에선 소홀했던 것 같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는 학생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경대학 한군태 학장

Q. 최근 기존의 학생 인쇄매체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등장한 이런 인쇄매체들은 아직 시작단계다.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한다면?

A. 새로운 학생 매체들은 학생들의 의지로 생겨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매체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이 좌지우지될 것이다. 결국 그 지속성과 향방을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현재 새로운 학생 인쇄매체는 작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매체 활동을 위해서는 바탕이 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한다. 그 환경의 처음은 바로 학생들의 관심과 유대감이라는 토양이다. 이를 위한 각 매체의 노력과 시도들이 이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씨앗이 싹을 틔워 존재감이 커진다면 학내 기존 언론매체에 각성 효과를 주는, 양측에 바람직한 결과를 낳길 기대해 본다.

■좌담- 봉사활동으로 알찬 방학을

“진짜 잘 사는 법, 봉사활동으로 찾았죠”

여름방학이 두 달 째로 접어들고 있다. 늘 방학의 시작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개강이 가까워 오면 좌절만 남아있기 십상이다. 지금 당신의 방학은 어떠한가. 집 안에만 틀어박혀 하릴없이 빈둥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함몰돼 주변의 이웃을 돌아 볼 시간조차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보다 알차게 방학을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신문은 봉사활동을 통해 방학을 의미있게 보낸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진행: 김자년 기자 BELEN@khu.ac.kr
정리: 김민정 기자 cool@khu.ac.kr

방학 중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들었다. 각자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듣고 싶다.

김영주(이하 김): 지난 7월, 2주 동안 우리학교에서 주최한 연해주 해외봉사에 참여했다. 졸업 전에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한 번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다. 경희 봉사단은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고려인 정착마을에 가서 수로작업과 제조작업 등 마을 시설 기반을 닦는 활동과 더불어 벽화그리기를 했다.

진남현(이하 진): 지난 6월 28일부터 9박 10일 간 경북 상주로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을 다녀왔다. 올해로 3년째 농활에 참여하고 있다. 1학년 때는 무작정 선배들을 따라서 갔지만, 지금은 그곳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고 있다. 방학 때마다 다녀오다 보니 어르신들이 부모님처럼 느껴져 고향집에 내려갈 때처럼 선물을 장만해 가기도 한다.

임연주(이하 임): G20정상회의의 대학생 홍보대사인 ‘G20 영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활용한 G20 정상회의의 홍보활동이다. 대학생이 된 후 첫 방학인 만큼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유승연(이하 유): 건설기업인 삼성물산에서 주관하는 여대생 리더십 프로그램 ‘래미안 앨리스’에 참가해 프로그램의 마지막 활동으로 해비타트 활동을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봉사였다. 이전에도 1년간 해비타트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있고 꿈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건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뿌듯함도 느낀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밌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진: 농활을 다녀왔던 곳이 시골이라서 하늘도 맑고 별이 정말 많았다. 옥상에 올라가서 별 한번 보고 술도 한잔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김: 고려인 어린이들과 인근 러시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 때 한국어 뿐 아니라 가수 원더걸스의 ‘노바디’라는 곡의 춤을 알려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랐던 일도 있었다.

진: 한번은 농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는데 어느 집 개가 도망을 쳤다. 집에 가려고 쫓고 웃도 새로 갈아입었지만 도망간 개를 찾는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같이 동네를 뛰어다녔다. 이번엔 다시 그 마을로 농활을 갔더니 어머님께서 그 개가 하도 도망다녀서 15만원 주고 팔아버렸다고 하시더라. 정말 말이 웃었다.

유: 예전에 지체장애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다. 길을 가다가 그 곳에서 만난 아이와 마주쳤는데, 나를 먼저 알아보고 와서 안아주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는구나 싶었다.



임연주(건축학 2010)
G20정상회의의 대학생 홍보대사
‘G20 영 앰배서더’



진남현(사학 2008)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김영주(환경조경디자인학 2007)
2010 경희대학교
연해주 해외봉사단



유승연(주거환경학 2008)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요즘 많은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자격증을 따면서 ‘스펙 쌓기’에 몰두하거나,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그것대신 봉사활동을 택하고 후회하지는 않았나.

김: 4학년이라 마치 고3 수험생 때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참여했던 봉사활동의 기간이 비록 2주였지만 졸업전시회준비와 대외활동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연해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또 봉사활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스스로 내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유: 방학과 같이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대학생들을 위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공부에 전념을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영어시험 점수를 높일 수도 있

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도 스펙의 일종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 아직 1학년이라 스펙 쌓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고학년일수록 스펙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 내가 참여했던 활동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상을 받는다. 그래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1등은 나이 많은 팀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

김: 현재 4학년이기 때문에 주변에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친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쌓는 일이라면 ‘스펙 쌓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이력서에 적어 넣을 이력 한 줄을 더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본다. 스펙에만 관심을 두는 활동을 하면 본인만 힘들어질 뿐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모 포털사이트의 카페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대외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다보니 스트레스만 쌓이고 곧 후회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스펙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니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진: 사실 스펙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스펙이란 면접관에게 보여줄 한 줄의 기록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한사람이 안 한 사람과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보여줬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 목표가 취직이라면 그 목표에 맞춰 대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진정한 의미의 스펙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학 중의 봉사활동이 학기 중 봉사활동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진: 방학 중 봉사는 장기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

김: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유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방학 중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좋았다. 학기 중에 독거노인봉사와 국제학생도우미를 한 적이 있다. 그 때는 다른 친구들과 일정을 맞추기도 힘들고 과제 때문에 봉사활동에 전념하기 힘들었다.

유: 방학 중 봉사는 봉사활동이 끝나고 난 후가 좋았다. 학기 중에는 활동이 끝나면 각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모이기가 힘들다. 그런데 방학 중 봉사활동은 끝나고 나서도 함께 봉사를 했던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친분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이번 활동의 일정이 끝나고 나서는 함께 했던 친구들과 같이 머드축제도 참여하고 해수욕장에 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방학 중 봉사활동을 추천하는 한마디씩 해 달라.

유: 조금만 찾아보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경험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 우리학교에는 각 단과대와 학생지원처, 국제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많다. 여유있는 방학기간에 교내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진: 공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모두 다 잘 살려고 하는 일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농활을 추천해 주고 싶다. 한번 다녀와 보면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좌담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이 우리의 미래에 보다 나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도 봉사활동을 통해 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보도

인복위와 운전면허 학원, “내 탓은 아니다”
다음 방학특강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김혜빈 기자 hbeeee@khu.ac.kr

【서울】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의 운전면허 특강이 신청 받을 당시 홍보했던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수강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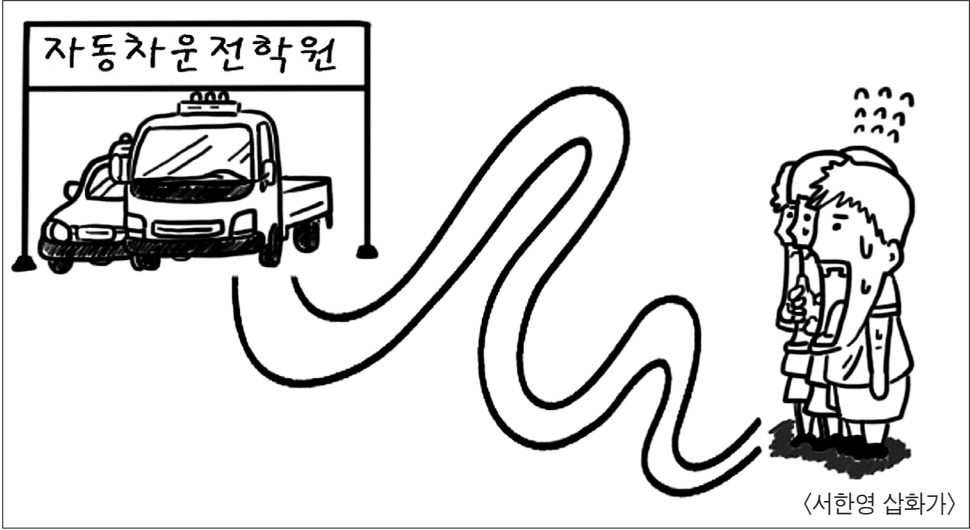
지난 6월 인복위로부터 교내 홍보 허가를 받은 드라이브에듀는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특강 접수를 받았다. 홍보 당시 원래 수강료보다 5만원 할인된 수강료,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홍보했던 내용과 다르거나 공지 받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보 당시, 드라이브에듀 경희대 홍보담당자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 시 회기역에서 학원까지 40분이 걸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시간 이상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수강시간 선택도 자유롭지 못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수강생이 몰리게 됐고, 다른 수강생들이 먼저 선택한 시간은 피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이상엽(경영학 2009) 군은 “7월 초, 운전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으나 원래 계획했던 시간대에 신청을 할 수 없어 2주가 지나서야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들의 이런 불만에 대해 홍보를 담당한 드라이브에듀 측과 교내 홍보를 허가한 인복위 측은 뚜렷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



〈서한영 삽화가〉

드라이브에듀 측은 우리학교 홍보 담당 아르바이트 학생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드라이브에듀 신승민 팀장은 “신청 후 등록 당시 학생들이 직접 학원에 방문한 뒤 수강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교내 홍보를 허가했던 인복위는 “자신들은 드라이브에듀가 학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허가만 해줬을 뿐”이라며 “그 이후의 일은 드라이브에듀 측이 관리해야하는 부분임으로 인복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단순히 홍보가 잘못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객관적인 자

료조사나 사전조사도 없었으며 인복위가 진행하는 다른 모든 특강은 모니터요원을 두고 있는데 운전학원 특강만 모니터요원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인복위 박병권(법학 2005) 위원장은 “다른 특강 모니터 요원들은 진행중인 강의를 듣기만 하면 되는데 비해 운전면허 학원은 강사와 요원이 1:1로 만나 수강해야하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을 투입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서한길(사학 2009) 군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허가 과정에서 학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학생의견 수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KSSI 사업 선정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통해 학생만족도 높일 것”

정선미 기자 ssun@khu.ac.kr

【서울】2010학년도 KSSI(Kyung Hee Student Satisfaction Index) 사업내용이 결정됐다. KSSI는 우리학교에서 최우수 학생만족 실천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올해 사업 선정은 2009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NCSI는 조사 당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1:1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단과대학별, 각

부분별(교과과정, 실험실습·기자재 등) 점수를 산출했다.

이후 부분별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사업의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7대 선결과제는 실험실습·기자재, 학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교과과정, 취업지원, 학생편의시설, 교수·강사, 학생문화지원 부문이다.

KSSI TF팀은 7대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재학생 상담도우미 선발, 직원 친절 교육인 CS교육 강화사업 실시, 수업용 미니홈피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로 신설한 학생문화 지원 부문은 경희인 고유의 학생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홍보처 오세운 계장은 “학과별, 단과대학별 학생이 주체가 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문화활동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SSI 사업에 대해 윤요섭(물리학 2007) 군은 “KSSI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희대 체육부, 이어지는 승전보

김혜빈 기자

Ⅰ 경기결과 Ⅰ

체조	2010 제35회 KBS배 전국체조대회 · 단체종합우승 금 7 은 3 동 5 개 · 개인종합 1위 김상우 · 개인종합 2위 남영일
배구	2010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하계대회 준우승
핸드볼	2010 HK인터내셔널 핸드볼챔피언십 우승
양궁	제 13회 한국대학양궁공존선수권대회 · 여자대학부 단체 1위 정다소미, 이경주, 권솔이, 김예슬 · 여자대학부 개인 1위 정다소미 · 남자대학부 단체 2위 장민석, 김정건, 박종보, 정동윤 제27회 회장기전국대학, 실업양궁대회 · 여자대학부 개인전 1위 권솔이
야구	2010년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하계 리그전 우승

【국제】우리학교 체육부가 각종 체육대회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2010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 결승전이 열렸다. 이 날 야구부는 성균관대를 5-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2회 초 2점을 실점했지만 4회 말 정우양(스포츠지도학 2007) 선수가 낸 1점을 시작으로 천성균(스포츠지도학 2007) 선수도 1점을 득점했다. 이어서 김경용(스포츠지도학 2009) 선수가 3타점 적시 3루타를 날려 3점을 추가했다. 결국 4회에 얻은 5점을 끝까지 지켜 역전승하였다.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안규영(스포츠지도학 2007) 선수는 “작년에 져던 팀들과의 4강, 8강 경기에서 이겨 결승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임했다”며 “개인상의 기쁨보다 팀 전체가 우승이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조부는 지난 달 18일 ‘2010 KBS배 전국 체조대회’에서 금 7개, 은 3개, 동 5개로 단체종합우승을 일궜다. 또한 김상우(스포츠지도학 2007) 선수와 남영일(스포츠지도학 2010) 선수가 개인 종합 순위에서도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김상우 선수는 마루운동(13,750점)과 철봉(13,975점)에서 1위를 차지해 개인종합과 단체전까지 합쳐 4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핸드볼부도 우승소식을 전했다. 지난 달 13일에서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10 HK인터내셔널 핸드볼 챔피언십’에서 핸드볼부는 예선전에서 만난 중국대표팀, 홍콩, 마카오와 차례로 불으며 2승 1무로 조 2위 차지하여 본선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중국광둥팀을 꺾은 후 결승에서 중국대표팀과 다시 붙어 우승하였다. 김만호 감독은 “우리팀 특유의 기동력을 앞세운 전략이 성공한 것 같다”며 “정신력, 팀웍을 대회끝까지 흔들리지 않아 우승까지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MVP와 Best shooter상은 김동철(스포츠지도학 2008) 선수에게 Best Player상은 정진호(스포츠지도학 2010) 선수에게 각각 돌아갔다.

3, 4학년 진로개발워크숍(취업캠프) 안내

취업진로지원처에서는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커리어아카데미의 일환으로, 2박3일 합숙으로 진행하는 진중 취업교육 프로그램인 진로개발워크숍(취업캠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취업진로 목표 및 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고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취업자신감을 얻어 본인의 커리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방법

가. 기간 및 장소

구분	기간	참가대상	장소	인원
전체 대학	2010.8.23 (월)~ 8.25(수) [2박3일]	3학년, 4학년, 졸업생 ★ 단, 취업을 준비하는 열정적이고 심은본은 학년 무관, 누구나 가능	알리안츠 연수원 (경기도 용인 시 처인구 남 사면 소재)	55명
	2010.8.25 (수)~ 8.27(금) [2박3일]		LG패션 이룸연수원 (경기도 용인 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55명

나. 참가비 : 전액 학교지원 (인당 30만원 상당)
※ 단 신청자는, 교육보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교육보조금 : 3만원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환급함, 신청 후 미참가시 환급하지 않음)

라. 참가방법 : 상기 일정 참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career@khu.ac.kr) 신청
※ 참가확정 여부, 교육보조금 입금 및 참가자에 대한 세부안내사항은 SMS 및 이메일로 별도 연락할 예정임
※ 메일 발송 시 제목에 “[취업캠프]참가일-학번-성명” 기재 (예) [취업캠프8/23-2005200200-홍길동

마. 참여자 특전
1) 참여자에게는 상반기 채용 대비 입사서류 클리닉(온라인) 제공(2010.9.30까지)
※ 비참여자 별도 실시 없음
2)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 문의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취업지원팀
☎ 031-201-3061 | career@khu.ac.kr

경희대학교-경기청년뉴딜사업 참여학생 모집

· 6주간 진행되는 취업전문교육 프로그램 · 취업주치의 배정, 취업에 관한 상담과 집중교육 실시

경희대학교-경기청년뉴딜사업은 2010년 2월 졸업자,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밀착상담,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 - 취업연계 진중 앞선” 과정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대상자로 확정되면 6주간의 교육기간은 물론이고 이후 연말까지 참여자 본인이 목표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4학년 학생 여러분의 취업준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career@khu.ac.kr, jobinfo.khu.ac.kr)

Ⅰ. 우리대학 사업 진행 및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① 모집대상 :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로, 2010년 2월 졸업자,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② 사업내용 : 본 내용 하단 「II. 경희대학교-경기청년뉴딜사업 개요」에 자세히 기재함

구분	진행기간	추가모집인원	모집대상
제1차	05.24(월) ~ 07.02(금)	마감	2010년 2월 졸업자,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제2차	07.12(월) ~ 08.20(금)	마감	2010년 2월 졸업자,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제3차	08.30(월) ~ 10.15(금)	5명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 각 차수별 6주간 기간 중 매주 1회, 1시간 개인상담 / 매주 1회, 5시간 취업교육
※ 진행일시 : 사전면담을 통해 확정(사전면담일시 추후 SMS통보)
③ 사업기간 및 모집 인원: 총 3차에 걸쳐 진행
④ 진행장소 : 개인상담-취업진로지원처 상담실 / 그룹상담(취업교육) - 매주 금요일, 멀티미디어관

⑤ 모집기간 : 2010.08.03(화) ~ 마감시까지
※ 선착순으로 선발하되 사전면담을 거쳐서 본인의 의지를 파악한 후 최종 결정함
※ 참여자 모집이 미달될 경우 추가 모집 있음(별도 공지 예정).

⑥ 프로그램 세부진행 : (주)커리어넷 (경기도 지정 우리대학 담당 위탁사업자)

㉞ 신청
1) 신청서류 : 소정의 양식을 첨부하여 취업진로지원처에 E메일 제출 (career@khu.ac.kr)
※신청양식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jobinfo.khu.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II. 경희대학교-경기청년뉴딜사업 개요

① 총 사업기간 : 2010. 5월 ~ 2010. 10월

② 사업방식 : 밀착상담-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직장알선 및 사후관리 의 3단계로 추진

가) 밀착상담 : 6주간 총 36시간 (개별상담 매주 1시간, 총 6시간 / 그룹상담 매주 5시간, 총 30시간)

가) 개인역량탐색: 적성검사, 직업탐색, 취업전략 등

· 취업역량강화: 이력서작성, 실전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 경력개발 : 조직적응, 생애설계, 중장기 경력계획 수립 등

나) 전문교육 다) 인턴근무 라)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jobinfo.khu.ac.kr ☎ 031-201-3061

의료기관 비전 선포식

“소통으로 환자에게 다가서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

경희의료원이 지난 2일 평화의 전당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비전 선포식은 의료원의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발표하고 의료원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경희의료원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과 그에 따른 발전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차관호 기자 jypfphvh@khu.ac.kr

경희의료원은 향후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원의 구조부터 바꿨다. 기존 경희의료원은 ‘경희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본원과 동서신의학 병원에 각 병원마다 병원장을 두는 2병원장 체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대형병원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의료원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한 경희의료원은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는 교명을 사용한 이름 아래에 경희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6개 병원체제로 운영된다. 의료원 측은 병원 이름에 교명을 사용하여 통일감과 홍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Medical center’라는 영문명도 ‘Healthcare System’으로 바꿀 계획이다. 기존의 Medical이 ‘치료’라는 좁은 개념이었다면 Healthcare는 치료를 포함한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관리하겠다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병원 시설도 증축할 계획이다. 경희의료원 서관 지하 1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

지는 응급 센터를 현재 신종플루 진료실이 있는 위치에 신축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료원 맞은편에 위치한 치과병원의 증축, 대형 암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의료원 측은 “학교 정문과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에도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 포함된 R&D 연구복합단지에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Global medical complex)’설립을 계획 중이다.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는 대학, 병원, 기업, 국제사회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원은 지난 6월에 이미 운영을 시작한 ‘경희 메디컬 아카데미’를 통해 의료원 직원들의 경영 교육, 타 학문간 상호 이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비전 선포식에서 강조한 ‘소통’의 대상인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의과대학병원 임영진 병원장은 “비전 선포가 단순한 선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비전의 하나인 ‘open mind’ 자세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비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

이젠 기부도
독특하게 하세요!

김혜빈 기자 hbeeee@khu.ac.kr

【서울】최근 우리대학 의료원에서 돈을 내는 일반적인 기부가 아닌 이색적인 방법의 기부 사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의료원 치과대학병원은 지난 달 22일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폐보철물 기부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사랑의 폐보철물 기부는 그동안 폐기되거나 환자가 가져갔던 폐보철물을 모아 재활용해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료환자가 폐보철물을 경희의료원에 설치된 모금함에 넣으면 이를 적출물 처리소를 통해 재활용함으로써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교육비를 후원하는 ‘꿈나래통장’ 지원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 지원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다.

경희의료원 치과대학병원 우이형 원장은 “보철물 폐기는 범지구적으로 봤을 때 자원 낭비나 다름없다”며 “폐보철물 기부는 기부의 의미만이 아닌 교육과 재활용의 의미로서도 유익하므로 우리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치과병원에서도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서신의학병원은 지난 달 23일 트위터(http://twitter.com/khnmc)를 통한 ‘일당백 나눔 이벤트’를 시작했다.

트위터 가입자 중 ‘KHNMC’를 ‘followers’로 추가하면 한 사람당 100원 씩 기부금이 모아진다. 이번 행사는 만 명의 ‘followers’를 목표로 약 2주 동안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 약 1200명이 ‘KHNMC’를 followers로 추가해서 약 12만원이 기부됐다.

동서신의학병원 홍보팀 임종성 실장은 “이번 이벤트는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의의를 뒀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병원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인센티브로 4억 7300만원 받아

정선미 기자 ssun@khu.ac.kr

지난달 5일 우리학교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09년 성과평가, 2010년 사업계획 컨설팅 부문에서 대형대학(재학생 1만 명 이상) 중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주관하며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대학의 교육기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우리학교는 ‘201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 결과에 따라 35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추가적인 성과평가와 사업 컨설팅 부문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

2009년 성과평가는 지난해 진행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지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실적 및 성과와 같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선정된 최우수 대학에게는 당

초 지원금의 10% 지급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2억 6,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업계획 컨설팅은 2010년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2010 사업추진 계획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교과부에 제출해 평가받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최우수 대학에게는 당초 지원금의 6% 내외로 우리 학교는 2억 900만 원을 획득했다. 이로써 총 4억 7300만 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교과부 대학선진화와 김지은 사무관은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며 “당초 지급된 지원금을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우리학교가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에 대부분 사용하게 된다. 특히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직무적성검사, 독서토론회, 7개 영역별 외부인사 초청 특강 등의 교육영역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보도

■ 주간 뉴스 브리핑

경희인이자라면 가족과 함께 뮤지컬을!

【서울】우리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8일까지 뮤지컬 ‘곰돌이 푸의 생일파티’를 공연한다. 푸의 친구들이 푸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그렸으며 영어공연과 한국어 더빙공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희학원 구성원에게는 현장에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학생증, 직원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아직도 진로고민 해? 여기로 와봐!

【국제】취업진로지원처는 2010년 2학기 16주간 ‘자기이해를 통한 맞춤 진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강의는 자기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신나게 살고 싶은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료 시 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문의는 학생생활상담팀으로 하면 된다.

‘UCC’에 국제캠퍼스를 담아봐요.

【국제】‘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UCC공모전’이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Global Mind와 Global Reach의 문화를 확산하고 구성원에게 소통의 대학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31일까지며 우리학교나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전국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주제는 국제캠퍼스에 관한 자유주제이다.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칠 때 방법은?

【서울】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고 우리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26일 시작됐다. 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인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는 연수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한국어 교수법 특강 외에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도 포함된다.

■ 알림

수강신청 일정

오는 10일 부터 17일 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10일은 4학년, 11일은 3학년, 12일은 2학년, 13일은 1학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16일 오전 9시 30분 부터 17일 오후 5시 까지는 전 학년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2010학년도 2학기 종합시간표는 각 학부(과) 행정실을 통해 받아 갈 수 있다.



교훈

하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주간 송병록
부주간 김민전
편집장 박성희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국 독 료 / 1면 1만원
구독료 / 02-961-0093-4
주소경정문의 / 02-441-7317(미래기획)

서울캠퍼스 우1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02-961-0093-5, FAX 02-963-5849

국제캠퍼스 우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인터넷 전자메일 master@mediakhu.ac.kr

국제캠 GC 첫 실시, 교류 부족 아쉬움 남겨 학생 참여 유도과 교류 프로그램 개선 필요



GC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모습

조은나래 기자 eunnar@khu.ac.kr

【국제】지난 7월 한 달 동안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GC)’가 ‘녹색 지구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처음 실시됐다.

GC 프로그램은 교육·연구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기여할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의 특정과목 쓸림현상과 교류 프로그램 미흡으로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 주제 강의와 언어 예술 강의의 외국인 학생 분포가 크게 차이났다.

총 18여명으로 참여 외국인 학생 수도 적은 상황에서 Korean language, Culture and Taekwondo 수업에는 외국인 학생이 10명이나 몰린 것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수강하는 수업이 과학주제 과목일 경우 강의실에서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Water quality and Resources’ 수업을 들은 이승연(화학공학 2009) 양은 “많은 외국인 친구

도 사귀고 싶었는데 외국인 학생이 반에 한 명 밖에 없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교류를 위한 체험학습인 ‘Field Trip’의 참여율 역시 전체 학생의 10% 내외에 그쳤으며 한국인 학생의 참여도 최대 8명으로 저조했다.

“서울캠, 교류 프로그램에 설문조사 통해 학생의견 반영위해 노력”

“Water quality and Resources” 수업을 들은 오현석(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0) 군은 “체험학습 장소가 한국인이면 한변쯤 가봤을 장소인데다가 한국인이 돈을 내고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 국제캠 국제교류처 조종구 직원은 “앞으로 활발한 홍보와, 개설 강좌의 주제를 차별화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또한 한국인 학

생이 참여해도 유익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국제캠보다 앞서 GC를 시행한 서울캠 역시 처음 시행한 2006년 당시에는 외국인 학생 수가 25명으로 저조했지만 기존 자매교 외의 해외대학으로 홍보를 확대해 이번 해는 270명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서울캠의 경우 Field Trip과 주중 학외 활동의 학생 참여도가 높다. GC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570여명의 학생 중 적으면 80명부터 많으면 250명까지 체험활동에 참가했다. 서울캠 국제교류처 GC 프로그램 담당 이정아 직원은 “한국인 학생들은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기회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Global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nge’ 수업을 들은 이실다이(화학공학 2008) 양은 “허울뿐인 프로그램보다는 외국인 학생들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등, 생활 중에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기계발·친목 동시에 UP 경희 독서 커뮤니티

국주연 기자 kook@khu.ac.kr

【서울】독서활동 증진과 토론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중앙도서관(중도) 주관 ‘경희 독서 커뮤니티’ 모임이 높은 관심과 참여로 당초 마감일보다 약 2주 앞선 지난 2일 마감됐다.

이번 모임에는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지원한 20개팀 156명에 개별 신청자 22명을 포함, 총 178명이 신청했다. 중도 측은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발해 2학기동안 운영하며, 합격 공지는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 신청자는 중도 측에서 직접 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희 독서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별로 한 달에 한 권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중도 측이 책을 제공하고 각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독서와 토론 후 홈페이지에 독서 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 중 우수 독서후기로 선정된 것은 ‘우수 후기 모음집’으로 발간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책자 형식으로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구성원별 매달 1권, 학기당 6권의 도서를 제공한다. 또한 독서커뮤니티 활동 인증서 발급은 물론 개인별 독서 이력 관리를 해주며, 성실한 회원에게는 도서관 우수이용자 혜택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 열람과 최윤희 직원은 “이 프로그램은 전문지식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경희 독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자체 조직한 독서 커뮤니티와 통합해 커뮤니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세립(사회과학 2007) 양은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의 친목 겸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신청하게 됐다”며 “주최측의 체계적인 관리로 독서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펙에 휘둘려 주체성 잃지 말아야



김자년 (기자)

자원봉사를 하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대학생에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또한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욕심 많은 대학생은 자기 시간이 많이 생기는 방학에 특히 생각나는 것이 스펙이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의 문을 뚫기 어려운 요즘,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학생에게 가장 절실한 것 또한 눈에 보이는 이력

서 속 한 줄의 스펙일 것이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스펙에 휘둘려, 대세를 따르다 본인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수많은 방학을 거쳤지만 막연하게 휴식기라 여겼던 그때만 달리 대학생이 된 이후로 방학에 대한 인식과 의미가 크게 바뀌었다. 대학생에게 방학은 성숙해진 몸과 마음으로 삶에 대한 목표와 꿈에 대해 고민하

고 나아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미래를 설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이지기에 중요하다. 생택취페리의 <어린왕자> 중에서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비밀을 알려준다. 할 수 있는 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그리고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한 줄의 스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를 찾는 시간이 바로 방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았다면 그때 이제 그것만을 향해 전력질주 해야 할 시기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여름방학의 허리춤에 서 있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는 본인이 깊이 생각해보야 할 문제일 것이다.